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비교

Awareness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and Teachers Towards Criteria for Class Placements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명순*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부교수 김혜금**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훈련센터

센터장 이윤선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Kim, Myoung-Soon

Dep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Kim, Hye-Gum

Studies and Training Center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

Center head : Lee, Yun-Seon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child care center directors and teachers' recognition of criteria for class placements, specifically for children who were born in January or February, children's ability, and for mixed-age classes. The subjects were 398 center directors and 383 teachers in Seoul, Gyeonggi-do, Jeolla-do, Gangwon-do, Choongcheong-do and Gyeongsang-do.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and the t-test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child care center directors and teachers believed that children born in January or February should share a classroom with classmates of the same age. (2) Most child care center directors and teachers believed that regardless of a child's ability, it was desirable for the child to be in a class with classmates of the same age. (3) Child care center directors thought that the current criteria for teacher-child ratios within a mixed-age classroom were acceptable but should be lowered if the child care center was not experiencing financial problems. Meanwhile, most of the teachers thought that lower teacher-child ratios within a mixed-age classroom was desirable.

▲주요어(Key Words) : 보육시설장 (child care center director), 보육교사 (child care center teacher), 반편성 기준(criteria for class placement)

I. 서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시설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보육시설의 반은 동일 연령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왔으며 혼합연령반은 반별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구성되고 대개 가정보육시설에 혼합연령반 편성이 많다. 그런데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동일한 연령이어도 개인간 발달 차이가 크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간 발달차가 크게 나타난다. 영아의 경우는 개월수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고 유아의 경우에도 또래 집단에

* 주 저 자 : 김명순 (E-mail : kimms@yonsei.ac.kr)

** 교신저자 : 김혜금 (E-mail : khghoonba@hanmail.net)

비해 발달이 현저히 빠르거나 느린 유아가 있다. 발달차가 큰 영유아가 동일한 반에 있는 경우 보육교사는 이들의 발달수준을 반영하여 보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며 영유아도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은 1991년 이래 매년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통해 제시되어 왔으나 연령별 반편성 기준 원칙 외에는 반편성과 관련한 기준을 찾아보기 힘들다.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확한 이론적 근거없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여 반편성 기준을 그때그때 수정하여 제시하여 왔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또한 2007년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07)에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을 뿐 1, 2월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2008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2008)와 2009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2009)에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의 예의를 자세하게 제시하였고 2010년 보육사업안내에 1, 2월생은 동년도 출생아반으로 편성하도록 바뀌었다. 즉 2010년 보육시설의 반편성은 09년도와 동일하게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끼리 한 반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반을 옮기는 것을 인정하되,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반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0).

초등학교 취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27일 개정·공포되면서 2009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영유아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바뀌고 학부모가 1년의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초등학교 취학 관련 사항이 변경되면서 이전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영유아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2010학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영유아가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의무 취학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만 6세가 된 영유아를 둔 학부모는 11월초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영유아명부를 확인하도록 되었으며, 2008년의 경우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영유아는 2009년 3월 1일에 입학하였고, 2009년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영유아는 2010년 3월 1일에 입학하게 되었다. 결국 취학영유아명부 작성기준일이 10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고, 이후 취학 통지일과 예비소집일 등이 빨라지게 된 것이다(권동택, 2008).

취학연령 기준의 변화에 따라 보육시설의 반편성 기준 또한 동년도 1월생부터 12월생이 같은 연령반에 편성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발달 정도가 동년배에 비해 다소 빠른 1, 2월생 영유아도 동일연령반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가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을 옮길 수 있으나 대다수 1, 2월생 영유아는

동일연령반에 편성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동년배에 비해 발달이 빠르거나 느린 영유아도 동일연령반에 편성되어 이들의 개인차에 기초한 보육활동이 제공되지 못하여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나 보육시설장들 또한 영유아의 개별적인 차이를 보육활동에 반영하는데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영유아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적합한 보육활동이 제공되기를 바라며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라 반이 편성되기를 원한다(현은강·조은경, 1995). 또래집단 간 수준차가 많이 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발달수준에 따른 반편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달수준에 따른 반편성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발달수준별 반편성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있어야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보육시설이 상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수·학습 활동이 반에서 제공되고 영유아의 여러 발달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호작용 또한 반에서 이루어지므로 반편성 기준에 따라 영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반편성 기준은 집단내에서 영유아 개인의 발달을 돕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경우 동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연령반은 동질집단, 동 연령집단, 수평집단이라고도 불리며 혼합연령반은 수직집단이라고도 한다. 동일연령반은 영유아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반 구성으로 연령이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가정 하에 영유아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집단구성 유형이다. 반면 혼합연령반은 연령이 같은 영유아라 할 지라도 발달정도나 능력, 성취수준이 동일하지 않아서 연령을 준거로 반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를 같은 반에 편성하는 집단구성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동일연령반은 가장 나이가 많은 영유아와 가장 나이가 적은 영유아와의 연령 차이가 18개월 이내인 집단으로 정의하거나(Freedman, 1982:47-63), 가장 나이가 많은 영유아와 가장 나이가 적은 영유아와의 연령 차이가 2개월 이상 되는 집단, 또는 두 연령 이상이 있는 집단에서 한 연령의 비율이 최소한 40% 이상이 되는 집단유형(Goldman, 1981)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일연령반을 12개월 이내의 연령차로 정의하여 연구(이윤옥, 1992; 서현옥, 1999)되어 왔으며 학급내의 가장 어린 유아와 가장 나이가 많은 유아간 연령 차이가 12~24개월 이상일 경우 혼합연령집단이라고(보건복지부, 2000; 유희정, 2005) 보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동일연령으로 반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혼합연령반에 비하여 영유아 개인차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교사가 교구 교재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전체 학습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학습을 운영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하승민, 1996b).

그러나 혼합연령반은 나이 많은 영유아에게 친사회적 행동, 사회인지적 발달,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더 나이 적은 영유아들에게는 자신보다 발전되고 세련된 사회적 행동의 모델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잇점이 있다(Roonpanarine & Johnson, 1984). 발달 수준이 낮은 영유아와 발달 수준이 높은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은 학문적, 사회적 양면에서 두 집단 영유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Howes & Farver, 1987; Slavin, 1987), 돌보기, 보호하기, 돕기,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이나(French et al., 1986; Ellis et al., 1981; Goldman, 1981; Winsler, 1993) 의사소통기술(김현숙, 2001; 남명자, 1994; Guralinick & Paul-Brown, 1984)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연령반 운영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연령반 운영 집단의 연령 범위, 집단의 크기, 그리고 교사 대 영유아의 구성비(Decker & Decker, 1976; Mounts & Roopnarine, 1987)가 복합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혼합연령반 편성 기준은 2010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2010)에 제시되어 있는데, 혼합연령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 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아의 경우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만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고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농어촌 특례인정시설 제외)은 만 2세와 만 3세 영유아들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유치원의 반편성 기준은 보육시설에 비하면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 195075) 제 2장, 제 16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 수는 관찰정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 13조에는 유치원의 학급 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하며,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신은수 등, 2008).

보육시설은 유치원에 비해 반편성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보육교사들은 동일연령반을 운영하면서 영유아간 발달차가 큰 경우 보육활동 계획 및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한다. 한편으로 보육시설장은 반별로 정원 충족이 안될 경우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혼합연령반으로 반편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혼합연령반을 직접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보육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기도 하며 부모들 또한 혼합연령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합연령반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김명순 등, 2009). 시설장들은 부모의 반편성과 관련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우며 부모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보육교사들 또한 부모의 반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부모들의 반편성 기준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대처하는 행동도 달라질 것이므로 부모의 반편성에 대한 반응에 대해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현행 반편성 기준을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또한 적합하게 제공되고 있다. 반면 반편성 기준에 대해 보육교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영유아가 제공받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반편성 기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보육활동을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반편성 기준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반편성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영유아가 제공받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반편성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육시설의 1,2월생 반편성이나 발달이 빠르거나 느린 영유아의 반 편성과 관련한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혼합연령반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으나 반편성 기준에 대한 연구는 아니며 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혼합연령반과 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신은수, 1996), 사회적 가질놀이(이석순, 1997), 혼합연령 방과후프로그램 개발(이영자 등, 1999), 사회적 행동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의 차이(서현옥, 1999), 구성원간 상호작용(유희정, 2005), 유아들의 관계형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유준호·홍용희, 2006),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요구와 반응(배지희·황인애, 2007),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김영선, 1999), 유치원 단일연령 교실과 혼합연령 교실에서의 놀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하승민, 1996a), 단일연령집단과 혼합연령집단간의 영유아놀이 행동 비교 연구(하승민, 1996b) 등 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많으며 이외에 혼합연령학급의 운영 실제 및 교육적 효과(박정란, 2007), 연령집단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의 효과(정미경·김해남, 2004)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한편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혼합연령반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는 0~6세 혼합연령반 운영 사례 분석(윤복남 등, 2003)과 1~3세 혼합연령집단에서의 유아갈등 상황에 대한 연구(심미연·임재택, 2010) 등이 있을 뿐 반편성 기준과 관련된 연구는 없으며 특히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반편성 기준에 대한 인식차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2월생 반편성 기준,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기준, 동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 편성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1, 2월생 반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동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 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398명과 교사 383명 총 781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는 시설장의 경우 서울시가 125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5명(18.8%), 전라남도 73명(18.3%)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87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82명(21.4%), 강원도 72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장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이 131명(32.9%)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개인보육시설이 120명(30.2%), 국공립보육시설이 67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법인보육시설이 123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보육시설 91명(23.8%), 민간개인보육시설 84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시설장의 경우 1~20명이 12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경우 100명 이상이 92명(24%)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현직에서의 경력은 시설장의 경우 10년 이상이 198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경우 3~5년이 122명(31.9%), 6~9년이 109명(2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경력은 시설장이 평균 158.9개월, 교사가 평균 76.4개월로 시설장이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 자격이 342명(86.1%), 보육교사 1급 300명(75.6%), 유치원교사 2급 147명(3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1급이 338명(88.5%), 유치원교사 2급 207명(54.2%), 시설장 102명

(2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시설장의 경우 대졸이 152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139명(34.9%), 대학원졸 81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전문대졸이 236명(61.6%)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124명(32.4%), 고졸이 16명(4.2%)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1년에서 2009년까지 발간된 보육사업안내의 지침과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반편성 문항을 구성하고 설문지의 내용이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보육시설장 3인과 아동학 및 보육학 관련 교수 3인에게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부탁하였다. 최종 질문지는 시설장과 교사용 2가지로 각각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7문항과 1, 2월생 반편성에 대한 3문항, 발달이 느린 영유아와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에 대한 7문항, 동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 편성에 대한 14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의 소요시간과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9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이 아닌 시설장과 교사 각 3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한 후, 이해가 어렵거나 답하기 힘든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2009년 7월 24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보육교사교육원과 보육정보센터의 협조를 통해 방문시간을 의뢰하고,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시설장과 교사의 교육시간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은 77.9%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완성되지 않은 문항이 많은 질문지 25부를 제외하고 질문지에 응답한 시설장 398명과 교사 383명 총 781명이 최종적인 연구대상이 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질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시설장과 교사 집단 간 반편성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 t -검증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781)

항 목	내 용	시설장(N=398)	교사(N=383)
		빈도 (%)	빈도 (%)
소재지	서울	125(31.4)	87(22.7)
	경기도	75(18.8)	45(11.7)
	강원도	49(12.3)	72(18.8)
	충청남도	41(10.3)	31(8.1)
	전라남도	73(18.3)	82(21.4)
	경상남도	-	1(0.3)
	경상북도	35(8.8)	65(17.0)
유 형	국공립보육시설	67(16.8)	91(23.8)
	법인보육시설	51(12.8)	123(32.1)
	민간개인보육시설	120(30.2)	84(21.9)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	20(5.0)	22(5.7)
	부모협동보육시설	4(1.0)	1(0.3)
	가정보육시설	131(32.9)	33(8.6)
	직장보육시설	5(1.3)	26(6.8)
	무응답	-	3(0.8)
정 원	1~20명	141(35.4)	62(16.2)
	21~39명	70(17.6)	43(11.2)
	40~59명	45(11.3)	62(16.2)
	60~79명	57(14.3)	66(17.2)
	80~99명	45(11.3)	56(14.6)
	100명 이상	40(10.1)	92(24.0)
	무응답	-	2(0.5)
현직 경력	3년 이하	42(10.6)	93(24.3)
	3~5년	68(17.1)	122(31.9)
	6~9년	89(22.4)	109(28.5)
	10년 이상	198(49.7)	59(15.4)
	무응답	1(0.3)	-
총 경력	총경력(개월)	M(SD)	M(SD)
		158.9(77.9)	76.4(51.6)
소지 자격 (복수응답)	보육교사 1급	300(75.6)	338(88.5)
	보육교사 2급	51(12.8)	55(14.4)
	보육교사 3급	5(1.3)	2(0.5)
	시설장	342(86.1)	102(26.7)
	유치원교사 2급	147(37.0)	207(54.2)
	유치원 원감	9(2.3)	5(1.3)
	유치원 원장	18(4.5)	1(0.3)
	사회복지사 자격	122(30.7)	66(17.3)
	기 타	58(14.6)	16(4.2)
	무응답	1(0.3)	1(0.3)
학 력	고 졸	25(6.3)	16(4.2)
	전문대졸	139(34.9)	236(61.6)
	대 졸	152(38.2)	124(32.4)
	대학원졸	81(20.4)	7(1.8)
	무응답	1(0.3)	-

<표 2> 질문지 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1, 2월생 반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부모의 반응 -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부모의 불만사유 -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의견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의견 -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기준 -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발달영역 -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편성 경험 -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이유 -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 편성시 적용정도(5점척도) -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 편성시 예상되는 점(5점척도)
혼합연령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연령반 편성 - 혼합연령반 편성시 연령 구성 - 혼합연령반이 좋은 이유 - 혼합연령반이 좋지 않은 이유 - 혼합연령반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 혼합연령반 영유아 연령 비율 기준 - 혼합연령반 구성시 적절하다고 보는 교사 대 영유아 적정 비율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혼합연령반의 교사 대 영유아 연령 비율에 대한 이유 - 만 0, 1세 혼합연령반 편성 - 만 0, 1세 혼합연령반 편성 이유 - 만 0, 1세 혼합연령반 편성 불가 이유 - 만 2, 3세 혼합연령반 편성 - 만 2, 3세 혼합연령반 편성 이유 - 만 2, 3세 혼합연령반 편성 불가 이유
일반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소재지/ 시설유형/ 보육영유아 정원 - 현직 경력 및 총 경력/ 소지자격/ 학력

III. 연구결과

1.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기준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기준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은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2월생의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 기준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의 절반 정도가 부모들이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 기준에 동의하였고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것으로 보고한 반면 부모가 편편성 기준에 동의하나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는 시설장과 교사 모두 20% 미만이었으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 2월생 동일연령반 편성 기준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 이유로 시설장과 교사의 60% 정도가 '동년도 출생아들보다 자녀의 발달 정도가 앞서기 때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상위반의 보육료가 더 저렴해서 부모

들이 동일연령반 편성에 불만을 갖는다고 본 시설장은 32%였으나 교사는 12%였고 반면 영유아의 친구들이 상위반에 있어서 부모들이 불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교사는 44.0%였고 시설장은 34.7%로 나타났다. 1, 2월생의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 기준에 대해 시설장의 60%와 교사의 57.3%가 '현재의 기준에 따라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2.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은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에 대해 시설장, 교사 모두 '동일연령반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으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해당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인 발달수준의 평가

<표 3>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기준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항 목	내 용	시설장	교 사
		빈도 (%)	빈도 (%)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부모 반응	반편성 기준에 동의, 매우 만족	114(28.6)	93(24.3)
	반편성 기준에 동의, 약간 만족	99(24.9)	91(23.8)
	반편성 기준에 대해 다른 반응이 없었다	86(21.6)	109(28.5)
	반편성 기준에 동의, 약간 불만족	65(16.3)	70(18.3)
	반편성 기준에 동의, 매우 불만족	3(0.8)	2(0.5)
	무응답	31(7.8)	18(4.7)
	소 계	398(100.0)	383(100.0)
	χ^2	3.75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부모의 불만사유(중복응답)	동년도 출생아들보다 자녀의 발달정도가 앞서므로	45(39.5)	43(39.4)
	상위반의 보육료가 더 저렴하므로	24(21.1)	9(8.2)
	초등학교에 보다 빨리 입학할 수 있으므로	15(13.2)	16(14.7)
	아이의 친구들이 상위반에 있으므로	26(22.8)	33(30.3)
	동생과 연령간 차이를 더 두기 위해서	3(2.6)	4(3.7)
	기 타	1(0.8)	4(3.7)
	소 계	114(100.0)	109(100.0)
1, 2월생 동년도 출생아 반편성 의견	현재의 기준에 따라 동년도 출생아반에 구성	208(52.3)	194(50.7)
	현재의 기준에 따라 편성, 전년도 상위연령반 편성	41(10.3)	25(6.5)
	부모의 요구에 따라 편성이 모두 가능	58(14.6)	77(20.1)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되 교사의 판단에 따라	59(14.8)	68(17.8)
	기 타	3(0.8)	2(0.5)
	무응답	29(7.3)	17(4.4)
	소 계	398(100.0)	383(100.0)
	χ^2	4.39	

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교사는 '해당 영유아의 부모 요구와 객관적 평가를 모두 고려해서' 반 편성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시 고려되어야 할 발달영역에 대해 시설장, 교사 모두 인지발달영역을 가장 많이 들었다.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를 동일연령반이 아닌 하위연령반이나 상위연령반에 편성한 경험에 대해 '있다'가 시설장은 50.0%, 교사는 38.9%로 나타났고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5$). 그리고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를 동일연령반이 아닌 하위연령반이나 상위연령반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시설장은 '교사(시설장)와 학부모의 합의에 의해서'를 많이 언급하였고 교사는 '부모의 요구가 있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시 적응도와 예상되는 점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를 다른 학급에 편성한 경우 영유아의 적응 정도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물어본 결과, 시설장 4.2점, 교사 3.8점으로 시설장이 교사보다 영

유아의 적응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부모 만족에 대해서는 시설장 4.2점, 교사 4.0점으로 모두 부모만족도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한편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를 다른 학급에 편성할 경우 예상되는 점을 5점 Likert 척도로 물어본 결과, '교사의 개별적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에 시설장(4.2점)과 교사(4.1점)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시설장과 교사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동일연령학급과 혼합연령학급 반편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은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동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 반편성에 대해 시설장은 연령에 따라 동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으로 다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고, 교사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표 4>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범 주	내 용	시설장 (N=398) 빈도 (%)	교사 (N=383) 빈도 (%)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모두 동일연령반으로 편성한다	204(51.3)	241(62.9)
	느린 하위연령반, 빠른 동일연령반에	102(25.6)	63(16.4)
	느린 하위연령반, 빠른 상위연령반에	40(10.1)	23(6.0)
	느린 동일연령반, 빠른 상위연령반에	27(6.8)	37(9.7)
	기 타	6(1.5)	13(3.4)
	무응답	19(4.7)	6(1.6)
	소 계	398(100.0)	383(100.0)
	χ^2	6.23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기준	해당 영유아의 부모 요구에 따라서	5(2.9)	2(1.5)
	객관적인 발달수준의 평가를 실시	50(28.6)	37(27.2)
	보육시설의 판단에 따라서	19(10.9)	10(7.4)
	부모요구+발달수준평가 고려하여서	36(20.6)	39(28.7)
	발달수준평가+보육시설의 판단	22(12.6)	15(11.0)
	부모요구+발달수준평가+보육시설의 판단 고려	23(13.1)	24(17.6)
	기 타	-	3(2.2)
무응답	20(11.4)	6(4.4)	
	소 계	175(100.0)	136(100.0)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발달영역 (중복응답)	신체발달 수준	141(37.2)	74(20.0)
	사회성발달 수준	166(43.8)	158(42.7)
	인지발달 수준	231(60.9)	278(75.1)
	정서발달 수준	44(11.6)	45(12.2)
	언어발달 수준	76(20.1)	109(29.5)
	창의성발달 수준	13(3.4)	10(2.7)
	놀이발달 수준	13(3.4)	18(4.9)
	기 타	2(0.5)	13(3.4)
	무응답	19(4.8)	4(1.1)
	소 계	705(100.0)	709(100.0)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편성 경험	없 다	171(43.0)	221(57.7)
	있 다	199(50.0)	149(38.9)
	무응답	28(7.0)	13(3.4)
	소 계	398(100.0)	383(100.0)
	χ^2	15.36*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 이유	부모의 요구가 있어서	57(28.6)	61(40.9)
	객관적 발달수준에 대한 결과에 따라	27(13.1)	11(7.4)
	교사나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서	17(8.5)	10(6.7)
	교사(시설장)와 학부모의 합의에 따라	74(37.2)	53(35.6)
	기 타	3(1.5)	3(2.0)
	무응답	22(11.1)	11(7.4)
	소 계	200(100.0)	149(100.0)
	χ^2	13.91*	

*p<.05

동일연령반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으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1). 혼합연령반 편

성시 연령 구성에 대해 시설장은 만 1,2세반과 만 2,3세반 구성 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교사들은 만 4,5세반 구성이 적절

<표 5>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반편성시 적응 정도와 예상되는 점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범 주	내 용	시설장 (N=398) M (SD)	교사 (N=383) M (SD)	t값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적응과 만족도	영유아가 잘 적응했다	4.2(0.7)	3.8(1.0)	9.11*
	부모가 만족스러워 했다	4.2(0.8)	4.0(0.9)	2.14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의 다른 학급 편성시 예상되는 점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3.5(1.0)	3.2(0.9)	3.03
	학급 내 학습활동을 잘 이해한다	3.5(1.0)	3.2(1.0)	3.26
	교사의 개별적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4.2(0.9)	4.1(0.9)	2.19
	해당 영유아의 학습 흥미도가 더 커진다	3.5(1.0)	3.3(1.0)	2.19
	교사가 학급운영이 보다 수월해진다	3.2(1.2)	2.9(1.1)	2.46
	교사가 해당영유아에 대해 잘 이해한다	3.4(1.1)	3.2(1.0)	2.71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한다	3.1(1.0)	3.2(1.0)	-2.15
	반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아진다	3.1(1.1)	3.3(1.1)	-2.79

*p<.05

하다고 보았으며 혼합연령반이 좋은 이유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의 60% 정도가 아래 연령 영유아가 위 연령 영유아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하면서 학습이나 적응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시설장과 교사의 50% 이상이 현대 가족에서 결핍되기 쉬운 형제애를 길러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혼합연령반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 모두 80% 이상이 교사가 상이한 발달차이를 보이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지도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혼합연령반 영유아의 비율 기준에 대해 시설장은 현행기준처럼 아래연령 기준으로(38.7%), 비율의 중간 수준으로(21.4%), 70%이상을 차지하는 연령을 기준으로(16.6%), 위 연령 기준으로(14.3%)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현행기준처럼 아래연령 기준으로(44.6%), 비율의 중간 수준으로(22.7%), 70%이상을 차지하는 연령을 기준으로(16.4%), 위 연령 기준으로(8.9%) 나타났다.

혼합연령반 구성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연령 기준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혼합연령반 구성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혼합연령반의 교사대 영유아 비율 연령 기준에 대해 시설장은 만 0,1세는 1:3.7명, 만 1,2세는 1:6.6명, 만 3,4세는 1:14.3명, 만 4,5세는 1:16.4명으로 현행기준과 유사하였고 교사는 만 0,1세는 1:2.7명, 만 1,2세는 1:4.7명, 만 3,4세는 1:11.7명, 만 4,5세는 1:16.1명으로 현행 기준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더 낮추는 것을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5).

시설장과 교사에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혼합연령반의 교사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혼합연령반의 교사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 시설장은 재정적인 이유를, 교사는 영유아

지도상의 이유를 1순위로 들었다. 2순위로 시설장은 영유아 지도상의 이유를 들었고 교사는 영유아안전지도상의 이유를 언급하였다. 3순위로는 시설장은 보육실 공간상의 이유를 들었고, 교사는 교재교구 및 활동준비로 응답하였다.

시설장과 교사의 만 0,1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만 0,1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해 시설장은 '만 0,1세 혼합연령반을 편성해야 한다'가 59.3%였고, 교사는 '만 0,1세 혼합연령반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에 62.4%의 반응을 보였고 이는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1). 그리고 만 0,1세 혼합연령반 편성 이유에 대해 시설장, 교사 모두 '만 0세아와 만 1세아의 발달수준이 비슷하여 한 반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만 0,1세 혼합연령반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시설장, 교사 모두 '만 0,1세 발달 수준차에 따른 개별지도가 어려워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

시설장과 교사의 만 2,3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 2,3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해 시설장은 '만 2,3세 혼합연령반을 편성해야 한다'가 49.2%였고, 교사는 '만 2,3세 혼합연령반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가 83.6%였고 이는 두 집단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나타났다(p<.01). 만 2,3세 혼합연령반 편성 이유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는 '만 2세아와 만 3세아의 발달수준이 비슷하여 한 반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반면 만 2,3세 혼합연령반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시설장, 교사 모두 '만 2,3세 발달 수준 차에 따른 개별지도가 어려워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

<표 6> 혼합연령반 편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항 목	내 용	시설장 (N=398) 빈도 (%)	교사 (N=383) 빈도 (%)
반 편성	연령에 따라 다르게 편성	185 (46.5)	163 (42.6)
	연령에 상관없이 혼합연령반	46 (11.6)	11 (2.9)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반	124 (31.2)	194 (50.7)
	무응답	43 (10.8)	15 (3.9)
	소 계	398(100.0)	383(100.0)
	χ^2	21.33**	
혼합연령반 편성시 연령 구성(중복응답)	만0, 1세	75 (36.9)	48 (30.4)
	만1, 2세	115 (56.7)	52 (32.3)
	만2, 3세	98 (48.3)	33 (20.9)
	만3, 4세	87 (42.9)	38 (24.1)
	만4, 5세	88 (43.3)	63 (39.9)
	만0, 1, 2세	6 (3.0)	2 (1.3)
	만1, 2, 3세	6 (3.0)	2 (1.3)
	만3, 4, 5세	20 (9.9)	8 (5.1)
	만0에서 5세까지	2 (1.0)	-
	기 타	2 (1.0)	16 (4.1)
	무응답	28 (7.0)	3 (1.9)
	소 계	527(100.0)	265(100.0)
혼합연령반 좋은 이유(중복응답)	위 연령 영유아가 아래 영유아를 잘 돌봄 형제애를 길러줌	70 (36.8)	44 (31.0)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습관 형성	108 (56.8)	72 (50.7)
	경쟁심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103 (54.2)	85 (59.9)
	위 연령 영유아의 책임감 발달	18 (9.5)	11 (7.7)
	아래 연령 영유아의 모방, 학습 빠름	89 (46.8)	62 (43.7)
	자신감이 증진되므로	118 (62.1)	87 (61.3)
	여러 연령으로 인한 놀이 활성화	43 (22.8)	31 (21.8)
	기 타	64 (33.7)	49 (34.5)
	무응답	4 (2.1)	2 (1.4)
		41 (10.3)	32 (8.3)
	소 계	658(100.0)	475(100.0)
혼합연령반이 좋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위 연령의 영유아에게 자주 의존	16 (14.0)	34 (17.9)
	혼합연령영유아에게 적합한 지도 어려움	100 (87.7)	153 (80.5)
	아래 연령 영유아의 행동을 모방	25 (21.9)	55 (28.9)
	위 연령 영유아가 교사의 관심 덜 받음	62 (54.4)	101 (53.2)
	교재교구 및 활동 교구 제공 어려움	65 (57.0)	116 (61.1)
	동일 영유아간 배울 기회가 적어지므로	28 (24.6)	55 (28.9)
	위 연령의 영유아가 양보하게 되므로	32 (28.1)	59 (31.1)
	영유아간 경쟁심, 동기가 줄 수 있어서기타	11 (9.6)	16 (8.4)
	무응답	-	8 (4.2)
		10 (2.5)	4 (1.0)
	소 계	349(100.0)	601(100.0)
혼합반교사대 영유아 비율(중복응답)	현행 기준이 적당하다	123 (33.9)	83 (43.7)
	영아반에서 영유아 수가 더 많아야 한다	115 (31.7)	3 (1.6)
	영아반에서 영유아 수가 더 적어야 한다	82 (22.6)	44 (23.2)
	유아반에서영유아 수가 더 많아야 한다.	42 (11.6)	7 (3.7)
	유아반에서 영유아 수가 더 적어야 한다	38 (10.5)	73 (38.4)
	기 타	6 (1.7)	9 (4.7)
	무응답	35 (8.7)	4 (1.0)
	소 계	441(100.0)	223(100.0)
혼합연령반 영유아 연령 비율 기준	현행 기준처럼 아래 연령 기준으로	154 (38.7)	171 (44.6)
	위 연령 기준으로	57 (14.3)	34 (8.9)
	비율의 중간 수준으로	85 (21.4)	87 (22.7)
	70% 이상을 차지하는 연령을 기준	66 (16.6)	63 (16.4)
	기 타	6 (1.5)	4 (1.0)
	무응답	30 (7.5)	24 (6.3)
	소 계	398(100.0)	383(100.0)

**p<.01

<표 7> 혼합연령반 구성시 적정하다고 보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연령 기준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범 주	내 용	시설장 (N=398) M (SD)	교사 (N=383) M (SD)	t값
혼합연령반	만 0, 1세	3.7(1.4)	2.7(0.8)	15.33*
교사대	만 1, 2세	6.6(2.4)	4.7(1.4)	
아 동	만 3, 4세	14.3(5.1)	11.7(3.1)	
적정비율	만 4, 5세	18.4(5.2)	16.1(3.3)	

*p<.05

<표 8>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혼합연령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이유

내 용	시설장			교 사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제 정	114(28.6)	21(5.3)	27(6.8)	13(3.4)	5(1.3)	10(2.6)
보육실 공간	35(8.8)	61(15.3)	56(14.1)	9(2.3)	51(13.3)	77(20.1)
영유아안전	76(19.1)	67(16.8)	44(11.1)	111(29.0)	112(29.2)	44(11.5)
영유아지도	96(24.1)	87(21.9)	47(11.8)	193(50.4)	87(22.7)	27(7.0)
교재교구/활동	2(0.5)	40(10.1)	54(13.6)	5(1.3)	45(11.7)	104(27.2)
부모의 요구	8(2.0)	5(1.3)	23(5.8)	2(0.5)	6(1.6)	25(6.5)
기 타	4(1.0)	2(0.5)	2(0.5)	2(0.5)	76(19.8)	2(0.5)
무응답	63(15.8)	115(28.9)	145(36.4)	48(12.5)	78(20.6)	94(24.5)

<표 9> 만 0, 1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항 목	내 용	시설장 (N=398) 빈도 (%)	교사 (N=383) 빈도 (%)
만 0, 1세 혼합연령반 편성	편성해야 한다	236(59.3)	131(34.2)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129(32.4)	239(62.4)
	무응답	33(8.3)	13(3.4)
	소 계	398(100.0)	383(100.0)
χ^2		31.62**	
만 0, 1세 혼합연령반 편성 이유	한 반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	98(41.5)	79(60.3)
	학급당 원아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70(29.7)	13(9.9)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9(3.8)	3(2.3)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4(5.9)	18(13.7)
	혼합반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있어서	1(0.4)	2(1.5)
	만0세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6(2.5)	3(2.3)
	만1세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	-
	기 타	8(3.4)	4(3.1)
	무응답	30(12.7)	9(6.9)
	소 계	236(100.0)	131(100.0)
만 0, 1세 혼합연령반 편성 불가 이유	놀잇감 및 교재준비가 어려워서	7(5.4)	11(4.6)
	개별지도가 어려워서	64(49.6)	99(41.4)
	영유아의 교육적효과를 높일 수 없으므로	15(11.6)	25(10.5)
	만0세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2(1.6)	1(0.4)
	만1세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3(2.3)	12(5.0)
	만0세아의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1(0.8)	-
	만1세아의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	3(1.3)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서	18(14.0)	48(20.1)
	기 타	-	6(2.5)
	무응답	19(14.7)	34(14.2)
소 계	129(100.0)	239(100.0)	

**p<.01

<표 10> 만 2, 3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항 목	내 용	시설장 (N=398) 빈도 (%)	교사 (N=383) 빈도 (%)
만 2, 3세 혼합연령반 편성	편성해야한다	196(49.2)	47(12.3)
	기준에 따라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141(35.4)	320(83.6)
	무응답	61(15.3)	16(4.2)
	소 계	398(100.0)	383(100.0)
χ^2		27.11**	
만 2, 3세반 편성 이유	한 반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	80(41.0)	12(25.5)
	학급당 원아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52(26.5)	9(19.1)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2(1.0)	2(4.3)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5(12.8)	12(25.5)
	부모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	2(4.3)
	만2세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5(2.6)	2(4.3)
	만3세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	1(2.1)
	기 타	4(2.0)	1(2.1)
	무응답	28(14.3)	6(12.8)
	소 계	196(100.0)	47(100.0)
만 2, 3세반 편성 불가 이유	놀잇감 및 교재준비가 어려워서	11(7.8)	26(8.1)
	개별지도가 어려워서	63(44.7)	153(47.8)
	영유아의 교육적효과를 높일 수 없으므로	29(20.6)	88(27.5)
	만2세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1(0.7)	6(1.9)
	만3세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6(4.3)	9(2.8)
	만2세아의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4(2.8)	1(0.3)
	만3세아의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1(0.7)	2(0.6)
	기 타	3(2.1)	5(1.6)
	무응답	23(16.3)	30(9.4)
소 계	141(100.0)	320(100.0)	

**p<.01

IV. 논의 및 결론

2010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2010)에 제시된 보육시설의 반편성 기준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달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상관없이 동일연령반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1,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영유아 개인의 발달차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별 반편성을 하는 경우 동일연령대에서도 발달의 편차가 심한 1, 2월생과 발달이 또래집단보다 다소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를 지도하는 보육교사는 개인차를 반영하는 보육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자인 보육시설장은 현실적인 이유로 동일연령반 편성보다는 혼합연령반을 더 선호하기도 하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 보육교사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원활한 보육활동이 진행되기 어렵

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 편성 기준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보육시설 반편성과 관련된 정책 입안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필요로 하는 반편성과 관련된 정책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2월생 동일연령반 편성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의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보육시설은 1, 2월생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경우 발달수준의 차이로 인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손이 많이 가고 힘들었는데 동일연령반으로 편성되어 오히려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처럼 1, 2월생 동일연령반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은 1, 2월생이 발달 정도가 또래집단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 아니라 다소 앞서지만 또래집단의 발달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편이며 상위연령반의 발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기 초에 영유아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감

을 상실하거나 의기소침해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동일연령반 편성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취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8년 5월 27일 개정·공포)이 잘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1, 2월생이 동일연령반에 편성된다는 것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중앙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보육시설에서도 학부모들에게 계속적으로 공지한 결과 1, 2월생 동일연령반 편성에 대해 학부모들이 전반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보육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경우 직접적인 당사자인 영유아의 학부모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도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앞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모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와 지자체, 보육시설과 학부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육정보센터가 없는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수를 확충해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다수 시설장과 교사들은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연령반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언어나 신체발달이 다소 앞서서 영유아가 있으나 전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래 영유아의 발달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연령반에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를 동일연령반이 아닌 하위연령반이나 상위연령반에 편성한 경험은 시설장이 교사보다 더 많았고, 그 이유에 대해 시설장은 '교사(시설장)와 학부모의 합의에 의해서'를 많이 언급하였고 교사는 '부모의 요구가 있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시설장이 시설운영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발달이 빠르거나 느린 영유아의 반을 옮기는 최종적인 결정을 많이 내린 것으로 보이며 반편성은 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더불어 시설장은 교사의 의견을 반편성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달이 느리거나 빠른 영유아를 다른 학급에 편성한 경우 영유아의 적응 정도에 대해 시설장이 교사보다 영유아의 적응도를 높게 평가하였는데 실제 영유아를 지도하는 교사의 견해와 피상적으로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는 시설장간 영유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반을 옮긴 영유아의 적응 정도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객관적으로 영유아의 행동을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심각한 발달상의 문제를 지닌 영유아는 과학적,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해당 영유아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시설장과 교사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발달상의 문제를 지닌 영유아의 학부모들은 교사나 시

설장의 자녀의 발달에 대한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자녀의 발달상의 문제를 부모에게 인지시키거나 납득시키기 어렵다. 발달이 다소 빠르거나 느린 영유아는 동일연령반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데 특히 발달이 심하게 지체된 영유아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여 조기에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있는 영유아 발달진단검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 및 몇 군데 보육정보센터에서는 2008년부터 K-ASQ(한국형 연령 & 단계 질문지) 검사를 통해 부모나 교사가 생후 4개월~60개월 영유아의 발달을 연령에 따라 2개월, 4개월, 6개월 간격으로, 영유아와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4월 30일부터 보육정보센터들은 K-ASQ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2009년 5월 1일부터 K-CDRⅡ(우리아이 발달체크)를 오픈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도구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비전문가인 부모와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영유아의 제반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유아 발달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이러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치료기관에서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부모상담과 부모교육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혼합연령학급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 시설장은 현행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혼합연령학급의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은 현행 기준보다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유아간 발달차가 크기 때문에 현행 기준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더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보육교사들의 다수가 혼합연령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현행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고 응답한 본 연구결과는 연령간 발달 수준차에 따른 수업준비가 힘들다고 응답한 혼합연령반 교사의 비율이 70% 이상 나타난 박정란(200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시설장과 교사의 혼합연령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인식이 차이는 시설운영의 책임을 갖는 시설장과 직접 반을 담당하는 교사의 입장차를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 시설장은 시설 운영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행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보지만 영유아를 직접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보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좀더 낮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별 영유아 수가 적고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적을수록 영유아는 교사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며 개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교사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또래들과의 관계도 더 좋고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언어능력을 발달시킨다(Blatchford

et al., 2002)는 점을 고려할 때 혼합연령반의 경우는 영유아간 개인차가 더 크므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을 현행기준보다 더 낮출 필요가 있다. 한편 유치원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총 190개로 초등교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140개인 점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김은영과 박은혜(2006)의 연구를 고려할 때 더 어린 연령의 영유아를 지도하고 중일제로 운영되는 보육시설 혼합연령반의 보육교사들의 업무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행 혼합연령반의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만2,3세아의 혼합연령반은 편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아수 감소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만2,3세의 경우 운영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 순위로 하여 혼합연령반 편성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교사 1명 대 영유아 5~7명으로 아래 연령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만0,1세와 만2,3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해 시설장은 편성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교사들은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영유아에게 동일연령반 편성이 바람직하지만 원아모집의 어려움이나 적은 규모의 보육시설의 경우 혼합연령반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현행 기준의 아래 연령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시설장과 교사의 의견이었다. 혼합연령학급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행 기준보다 낮추기 위해 영유아수를 줄일 경우, 줄어든 영유아 수만큼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보육도우미와 같은 업무보조인력을 투입하여 혼합연령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정한 기간 자격연수를 이수한 보육도우미를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서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방도우미 제도는 보육시설에 인력을 지원해 줌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조인력을 혼합연령학급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양시의 경우 보육시설의 약 75%인 600개소의 보육시설이 40인미만 시설로 취사부 고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비정규직(파트타임) 또는 시설장이 음식을 조리하고 있어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서 위생적인 음식을 영유아에게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일산포유, 2009. 9. 16). 참여하는 주방도우미에 대해서는 고양시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건강진단과 주 1회 위생교육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배치되며, 보육정보센터가 제공한 식단계획표에 의해 음식 등을 조리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작은 규모의 보육시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보육시설 반편성기준에 있어서 발달이 빠르거나 느린 영유아의 반 이동시 적응 정도에 대한 인식, 혼합연령

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만0,1세와 만2,3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설장과 교사간 차이가 있었다. 즉 교사는 보육시설장에 비해 발달이 빠르거나 느린 영유아의 반 이동시 적응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였는데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많은 반면 보육시설장은 간접적으로 정보를 듣거나 피상적인 측면을 보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시설장은 운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을 이동한 것이므로 영유아 적응 상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합연령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 시설장은 현행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보육교사는 더 낮아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보육교사가 실제 영유아의 지도를 담당하고 보육시설장은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적정선의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만0,1세와 만2,3세의 혼합연령반 구성을 반대하였지만 시설장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각자의 입장차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반편성과 관련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반편성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더 많이 수행되어 적절한 반편성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의 반편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보육시설 운영이나 학급 운영상의 관점에서 반편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최적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반편성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마찰을 줄이는 노력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장과 교사가 서로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예비시설장 과정이 보수교육에 포함되어 앞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장의 입장을 경험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장에게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하고 보육교사와 시설장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문제해결 공동학습 또는 협동학습 유형의 보수교육이 제공되어 상호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설장과 교사간 보육과정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반편성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에 생길 수 있는 경직된 인간관계가 풀리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반편성과 관련하여 보육교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표현할 기회가 없거나 시설장이 보육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반을 편성한다면 결국 영유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2,3

세 혼합연령반 구성은 보육시설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지 않지만 만 0, 1세 혼합연령반은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들이 혼합연령반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반 운영과 관련된 장학이 지원되어야 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지원되어 수업준비 및 보육활동에서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에 만 2, 3세반 혼합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래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교사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혼합연령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거나 업무보조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전국적인 표집으로 하였으나 그 수에 있어서 전국의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을 전국의 모든 지역의 보육시설로 확장하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선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 방법을 질문지를 이용하여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비구조화된 질문 방법이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실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반편성 기준에 대한 인식 비교에 있어 반 편성 관련(예를 들면, 동일연령반, 혼합연령반) 시설장 또는 교사의 사전 경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전경험을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는 반편성과 관련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사전경험을 연구변인에 포함하여 인식차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점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었기에 어느 정도 보육시설 반편성 관련 연구의 제한점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특히 반편성 기준과 관련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필요로 하는 적정 반편성 기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동택(2008). 초등학교 취학 연령 및 유예 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8(3), 1-25.
 김명순·김혜금·이윤선·안현숙(2009).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김영선(1999). 연령집단구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8, 279-305.
 김은영·박은혜(2006). 유치원교사의 직무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3(2), 303-324.
 김현숙(2001). 혼합연령간 토의학습이 유아의 말하기-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명자(1994). 혼합 및 단일연령간의 의사소통 유형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정란(2007). 공·사립 유치원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혼합연령 학급 운영 실제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1(2), 161-182.
 배지희·황인혜(2007). 혼합연령 학급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요구와 반응 양상. **유아교육연구**, 27(6), 187-212.
 보건복지부(2000). 보육교사를 위한 반별 운영관리1: 영유아반/혼합연령반/방과후반.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서현옥(1999).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혼합연령 집단과 단일연령 집단간의 사회적 행동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의 차이. **아동교육**, 8(2), 75-88.
 신은수(1996). 혼합연령 집단과 동일연령 집단 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 비교분석에 기초한 혼합연령 집단 학급의 교수 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1), 139-155.
 신은수·전홍주·유영의(2008). 유아교육의 질적 지표향상을 위한 유치원 적정학급 규모 정책 수립의 방향. **유아교육연구**, 28(2), 193-216.
 심미연·임재택(2010). 1-5세 혼합연령집단에서의 유아갈등 상황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0(2), 211-235.
 유준호·홍용희(2006). 만 4, 5세 혼합연령 중일반 유아들의 관계형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3), 177-200.
 유희정(2005). 효율적인 혼합연령학급 운영을 위한 구성원간 상호작용과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9(2), 189-211.
 윤복남·이길동·윤희경(2003). 독일 세바스티안 어린이집 0-6세 혼합연령반 운영 사례 분석. **영유아교육연구**, 6, 41-58.
 이석순(1997). 단일연령집단과 혼합연령집단에서의 사회적 가장 놀이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1), 31-54.
 이영자·이종숙·이옥·신은수·이정옥(1999).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혼합연령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0(4), 3-24.
 이윤옥(1992). 또래관계 기술 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사회성 증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일산포유(2009). 보육시설 주방도우미 지원으로 균형있는 급식 제공. 2009. 9. 16.
http://www.com4u.co.kr/ilsan4u/culture/news_view1.asp?n_code=0800410&idx=58828&rpge=3.
- 정미경 · 김혜남(2004). 연령집단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의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3-44.
- 하승민(1996a). 유치원 단일연령 교실과 혼합연령 교실에서의 놀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한국영유아보육학*, 6, 87-110.
- 하승민(1996b). 단일연령집단과 혼합연령집단간의 아동놀이 행동 비교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 91-119.
- 현은강 · 조은경(1995).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요구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2, 219-244.
- Blatchford, P., Moriarty, V., Edmonds, S., & Martin, C. (2002). Relationship between class size and teaching: A multimethod analysis of English infant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1), 101-132.
- Decker, C. A., & Decker, J. R.(1976).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 Ellis, S., Rogaff, B., & Cromer, C. C.(1981). Age segregation i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99-407.
- Freedman, P.(1982). A comparison of multi-age and grouping in early childhood centers. In L. G. Katz(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vol.3, pp. 47-63).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
- French, D. C., Wass, G. A., Straight, A. L., & Baker, J. A.(1986). Leadership asymmetries in mixed-age children's groups. *Child Development*, 57, 1277-1283.
- Goldman, J.(1981). Social participation of preschool children in same versus mixed-age group. *Child Development*, 52, 644-650.
- Guralinick M. J., & Paul-Brown, D.(1984). Communicative adjustments during behavior request episodes among children at different development level. *Child Development*, 52, 911-919.
- Howes, C., & Farver, S. A.(1987). Social pretended play in two-year-olds: Effects of partn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305-314.
- Mounts, N. S., & Roopnarine, J. L.(1987). Social-cognitive play patterns in same-age and mixed-age preschool classroom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4(3), 463-476.
- Roonpanarine, J. L., & Johnson, J. E.(1984). Socialization in a mixed-age experimental program. *Developmental Psychology*, 20(5), 828-832.
- Slavin, R. E.(1987). Developmental and motivational perspectives on cooperative learning: A reconciliation. *Child Development*, 58, 1161-1167.
- Winsler, A.(1993). The social interactions and task activities of young children in mixed-age and same-age classrooms. *Eric ED*. 356074.

접수 일 : 2010년 11월 15일

심사 일 : 2010년 12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2월 24일